

강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오성숙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2-1 (2층) 전화: 전국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FAX: 634-4359) 청주 0431-52-9541 (FAX: 0431-52-0354)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5-0341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학부모회 상반기 대의원 대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과 상담실 추진

지난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상반기 대의원 대회가 대전 카톨릭 농민회관에서 있었다.

전국 14개 지부에서 45명의 임원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는 2시 30분부터 겨레사랑운동연합 심성구의 장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 강연의 주제는 “지역운동과 교육운동의 결합”으로 학부모회가 교육운동 단체로서 지역에 뿌리 내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95년 사업평가와 96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와 제안도 있었다. 작년 사업평가로는 부족한 인원과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학교급식 조례안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초등학교 만 5세입학 반대 △두밀분

교 살리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 △교육방송 살리기 연대회의 및 방송개혁국민회의 등의 활동성과가 있었던 반면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었다는 아쉬움과 각 지부의 실태조사나 신생지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96년 사업계획으로는 앞으로 확대 실시될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와 실태조사 및 공청회 준비가 중점사업으로 제안되었고, 교육정책의 계발을 위해 정책기획회의의 상설화, 상담소 개소 등이 제안, 다음날 결정되었다. 정관계정안도 지금까지의 지회-지부-전국이라는 3단계 조직형태에서 중앙의 전국 학부모회와 지역 조직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조직체계 형태로 바뀌었다. 12일 오전 9

시부터 시작된 대의원 회의에서는 김완자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96년 신임회장단 선출이 있었다. 96년 전국 회장은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오성숙전사무처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양민숙 전조직국장장과 박인옥 인천지부장, 총무국장 이진자, 문화국장 장은숙, 출판국장 송주비, 출판국차장 김은주, 사무처차장 조수영, 교육국장 홍수영, 모니터부장 고연아, 학교참여위원장 구명희, 상담원 팀장 신효중, 감사 조명숙, 황선희씨가 선출되었다 김완자 전회장은 초대 김영만회장에 이어 고문로 인준되었다.

한편 참교육 학부모회는 사회단체 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현재 등록을 추진중이다.

◇ 96년 학부모회 사업계획 ◇

월	전체내용
2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후원회원 확보를 위한 사업
3	1차 상담원 교육강좌 출판국 공개강좌
4	전국 임원대상 교육연수
5	지역별 어린이 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학교운영위원회 모범 모델제시 위한 VTR 제작
6	2차 상담원 교육강좌
7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청회
8	하반기 연수
9	지역별 여름방학 캠프 3차 상담원 교육강좌 7주년 창립기념행사-전체 회원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10	학부모 상담소 개소
11	유자차 만들기 (수익사업)
12	하반기 사업 평가 및 대의원대회 준비 각 지역별 송년회



96년의 중점 사업으로 오성국 신임회장은 교육정책의 계발을 위해 정책기획회의의 상설화를 강조하였다.



예술성 높은 세계적 명성의 어린이 책들

마루벌의

CD롬에 버금가는 새로운 어린이 책과 (지식의 뿌리), 유아를 위한 철학 교과서 (철학 그림책) 등, 도서출판 마루벌은 한국 아동출판의 새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책

아름다운이야기(4세부터)

- 1 엘로이즈와 늑대
- 2 바람개비 이야기의 신부복
- 3 꼬마곰의 외출
- 4 분홍빛 새끼늑대
- 5 임금님의 건강을 위하여
- 6 로보트가 나왔어요
- 7 두더지 부부 소동
- 8 높은 산의 거인 가족
- 9 발을 따온 아이
- 10 아가 이야기, 착해져라!



지식의 뿌리 (6세부터)

- 1 살아 있는 우주
- 2 재미있는 미술 여행
- 3 인류의 은인, 불
- 4 음악, 인간의 오랜 친구
- 5 먼저 보고, 조작해 보고, 느껴 보는 새로운 어린이 백과



떨레꽃을타리 (6세부터)

- 1 봄 이야기
- 2 여름 이야기
- 3 가을 이야기
- 4 겨울 이야기
- 5 자연의 소중함을 알깨우는 세계적 그림책으로
- 6 세계 13개국에서 출간된 현대 그림책의 고전
- 7 어린이도서연구회, 색동회 김수남 회장 추천 도서



마루벌의 좋은 그림책 (4세부터)

- 1 행복한 왕자
- 2 선인장 호텔
- 3 나무늘보야 해열쳐
- 4 사탕에 빠진 개구리
- 5 암야 어디 있어요
- 6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7 문이
- 8 아기 뽀글뽀글



철학 그림책 (4세부터)

- 1 문이
- 2 사냥을 저쪽
- 3 빨간 아기토끼
- 4 어린이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 5 입양, 전쟁, 운명 등의
- 6 깊이 있는 문제를
- 7 아름답고 쉽게 엮은 그림책
- 8 전3권/날권 5,500원



꼭신꼭신이야기그림책 (1세부터)

- 1 아기곰 두리
- 2 아기뽀글뽀글
- 3 아기코끼리 부부
- 4 아기다람쥐 띠띠
- 5 아기동물들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 6 아기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그림책
- 7 전4권/날권 6,000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마루벌의 책을 구입하시면, 그 수익금은 본 학부모회 사업에 사용됩니다 (Tel 02-675-9608)
■1월, 까지 마루벌의 어린이 책 한 종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예쁜 '96년도 마루벌의 어린이 달력'을 증정합니다.
도서출판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7가 40-6 Tel 02-701-2390 Fax 701-2395

마루벌 publications

사 설

고교 교육정책 전면적인 재검토를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도 고교입시에서 탈락한 인문계 지원 여학생들이 모두 구제되었다.

교육기획의 남녀 평등이라는 점에서, 또한 교육 주체의 한 축을 이루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이 고교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없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전북 교육청은 대안으로 그동안 찬반 의견이 맞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전주시의 평준화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모든 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맡기려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고교의 일반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50:50으로 정해놓고도 그에 따른 시설투자를 도외시한 채 우선 전환이 쉬운 여자 상고를 많이 늘린 데 근본 원인이 있다. 고교 진학이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녀 따로, 지역 따로, 인문계 정원에 맞추어 성적순으로 이루어지는 식이었기 때문에 남녀별 지역별 합격점 차이는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세우기 전에 그 정책을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최소한 그에 걸맞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따라서, 요즈음처럼 내실있는 실업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생의 처지나 장래는 무시한 채 일정한 점수에 이르지 못하는 절반의 학생을 무조건 실업계에 진학하도록 강요하는 교육부의 현 실업고교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녀 공학을 실시하여 남녀 구분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실업계 교육의 질을 대폭 높여 졸업후의 취직에도 도움을 주며, 동일 계열의 상급학교에 진학 할 때에는 혜택을 받는 등 학생 스스로 실업계를 선택할 요인을 제공해 주어, 그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면 이번 문제는 해소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고교 수용 인원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고교 탈락 학생들의 문제도 학교나 학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몇 년 뒤에는 취학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은 마땅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일지라도 개개인의 인생은 제각기 소중하고 값지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손상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건강한 사회는 결코 소수의 엘리트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훌륭히 제몫을 해 낼 수 있도록 키워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충분한 교육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서울고입 98학년부터 무시험전형

서울지역의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가 없어지는 98학년도 고교입시에서는 교과성적 80%, 봉사활동 8%, 출석성적 및 특별활동, 행동발달사항이 각 4% 씩 반영되는 무시험 전형이 실시된다. 따라서 현재 중학 1년생이하 학생부터 종합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자료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처음 23개 고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선복수

지원 후추첨제를 확대 실시기로 했다. 또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교 1개씩 3개교를 선정하여 학교장 초빙제가 시범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8개교를 신설, 학급당 인원수를 초등학교 41명(현 46) 중학교 43명(현 49) 고등학교 51명(현 53명, 여학생 학급은 55, 56명)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초등학교 내년 수업시간 늘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등 각 시,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영어과목의 수업시간을 연간 68시간(주당 2시간) 배정토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과목당 수업시간조정 등 교과편성작업에 들어갔다.

각 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영어과목의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일부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교육전문가 및 교사들은 특정 신설교과를 위해 현행 수업

시간 체제를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기존 교과목 수업시간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이지 않고 현재 주당 1시간씩 배정된 학교장 재량시간과 전체 교과목의 연간 수업시간 수를 34시간 늘려 영어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3학년생의 연간 총 수업시간은 986~1020시간에서 1020~1054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머지 시, 도교육청도 총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영어과목 수업시간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백지화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하나로 상습폭력행위 학생의 징계사항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백지화, 생활기록부에는 폭력 등 비행행위로 인한 정학, 근신 등의 징계사항을 적지 못하도록 했다.

김동희 고교교육 정책관은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졸업 후 취업과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며 "대신 학교장 책임 아래 상습폭력 학생의 징계내용을 보조장부인 상벌대장과 요선도 학생지도 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 3월 새학기부터 상습폭력 행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고아원, 양로원 등 봉사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선도제'를 도입,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학부모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투고내용 :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끼는 학부모 심정, 학교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 부당한 잡부금 등 교육문제 뿐 만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시오. 교육사진이나 고발사진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우)150-04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2-1 (2층)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출판국

▶ FAX : 02-634-4359

<학부모 신문을 구독하시려면>

▶전화 : 02-634-6508, 02-675-9068

▶FAX : 02-634-4359

▶1년 구독료 : 10,000원

▶은행지로 7605806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중소기업은행 148-017484-02-020 권명자

▶우체국 013185-0042323 홍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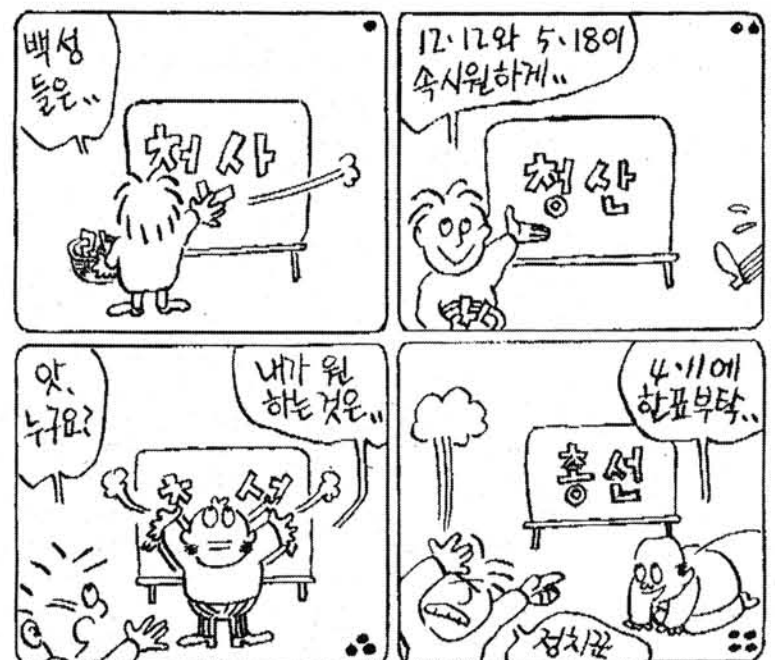
<학부모 신문 기사를 모집합니다>

▶부문 : 사진, 취재 ▶대상 : 함께 뭉 수 있는 학부모

▶문의 : 02-634-6508

학부모 만평

이숙자



☐ 중앙임원-신임인사

작은 정성 쏟을 때 기쁘고 힘나요

오성숙 회장

언 땅 속에서 새 봄을 향한 준비가 시작되듯이, 이제까지 준비해 오고 다져 왔던 참교육학부모회의 활동이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본격적으로 교육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간 학부모들은 지극한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찬조금을 내거나 선생님들에게 돈봉투를 갖다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의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육참여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참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외면시 되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말없이 회비를 내며 지지해 주고 온갖 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뛰었던 회원들과 초기 임원들의 헌신 속에서 참교육학부모회가 이제 우리 사회에 굳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왔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에서 새로운 힘과 자극을 받고 감히 회장이라는 어려운 일을 맡겠다고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지금의 열악한 교육여건도 어느 사이 우리 회원님들의 조그만 정성, 참여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인간적인 교육환경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밝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우리, 새해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안에서 모두 함께 즐거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양민숙 상임 부회장

우리 사회에 자발적인 학부모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과 참교육 학부모회에 쏟는 나의 작은 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보탬이 되어지리라는 확신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역시 회장님을 도와 참교육

학부모회가 명실공히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인옥 경인지역 부회장

96년은 학부모회가 창립7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동안 일해 온 사업들을 평가하고 점검해서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국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각 지부는 일률적인 사업보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나 추진력보다는 일반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 고민함으로써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지시하는 학부모보다는 같이 행동하고 풀어나가 포용하는 학부모의 주체적인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호중 상담원팀장

“따르릉”

“학부모 상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전화가 곧 개설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 설레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늘 잘 다녀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한데 넓적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오든지, 공평하지 못한 처사로 아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학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을 앓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어디에 호소 할 곳도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교육 문제, 선생님 및 학교와의 관계, 학부모의 올바른 자세 등 학부모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 아이만 잘 봐 주세요’ 하는 이기주의에서 돈봉투를 내미는 곱지 못한 학부모가 되기보다 우리자녀 모두가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평하게 땀땀이 자라길 바라는 학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은숙 문화국장

우리아이의 유치원 시절부터 수첩에 적어둔 참교육 학부모 주소를 들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자마자 학부모회의 문을 찾은지 2년이 되어간다. 참교육이란 뜻을 같이한 학부모들을 만나 는 것 이 기쁘고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 하다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가 학부모 운동의 큰 물줄기를 형성해 나갈 때 지금 나의 역할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진자 총무국장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학부모회 일에 정성을 쏟다보니 부담스런 직함까지 갖게 되었네요.

지부에서 갖고 닦은 실력으로, 그리고 회원들과 선배님들의 격려와 충고로 열심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커다란 일을 해결해 낼 때 가장 기쁘고 힘이 나지요.

96년은 우리 학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해이기도 하지요. 5.31 교육개혁안에 대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발적으로 조직될 것이고, 여러가지 바뀐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요.

송주비 출판국장

아주 작은 힘이라도 남을 위해 쓸 때 자신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는 사실을 학부모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신문회원으로 시작해 출판국 일을 맡게 되었으니 학부모 신문과 저의 인연은 깊은 셈입니다.

능력이 모자란 저에게 힘겨운 자리지만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학부모회 회원 여러분과 제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학부모 신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끊이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조명숙 감사

96년도 전국 사업계획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사업이 각 지부별로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 회원들과 전교조 교사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회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강좌와 강연 등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 만이라도 확실히 할수 있다면 앞으로 학부모회의 전망은 밝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감사

겨울 연수 첫날 토론 발표자로 두 세 번 얼굴을 알린(?)로 전국 감사로 선출되고 말았습니다.

참교육에 뜻을 두고 학부모회에 가입한 지 햇수로 6년이되었습니다. 노우회, 홍월선 등 참교육 선배를 만나고 중서부와 함께 이런저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잔잔한 정을 쌓았습니다.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것과 학교현장에서의 요구가 부딪힐 때는 갈등도 하고 좌절도 했으나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매몰되어 간 자아를 찾아 우뚝 서서 나도 보고 주변 이웃의 삶도 여유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부의 울타리를 넘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전국의 사업과 재정을 챙기라는 뜻에서 이 작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작은 주춧돌이 되어 힘써 일하고, 전국에선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 때 어떻게 제 몫을 하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 지부탐방 - 서울동북부지부

‘신나는 연극교실’

방학 중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극교실을 마련한 동북부지부를 찾았다.

연극 연습장으로 이용하는 상계동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의 따뜻하고 넓은 방은 16명 어린이들의 웃음과 열기로 가득했다. 이들이 연습하고 공연할 작품은 윤기현씨의 동화 ‘사랑의 빛’을 각색한 것으로 정해진 배역에 맞추어 대본 읽기와 동작 익히기 연습에 한창이었다.

지도를 맡은 극단 아리랑의 윤혜영씨는 “연극은 여러 사람이 욕심을 줄이고 함께하는 작업이므로 이를 통해 아이들은 협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표현력, 상상력, 창조력도 많

이 키울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처음 대본을 놓고 배역을 정할 때는 욕심을 부리는 어린이도 있었으나 대화로 쉽게 해결되었으며 별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8회로 한정된 연극교실 수업으로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발표를 통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수업일을 공연날로 계획했다고 한다.

연극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반응은 ‘대사의우기가 힘들다’ ‘자신감을 얻었다’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해 볼 수 있어 좋다’ ‘커서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 등 다양하고 재미있었다.

아이들과의 작업이 좋아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 연극을 지도한다는 윤혜영씨는 “연극도 종합 예술이므로 다각도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의 잠재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감정 표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세요”라는 말을 했다. 또 자신과 같은 전문 연극인이 아닌 엄마들이 연극교사가 되어 지도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신나는 연극교실 외에도 온



몸으로 표현하는 미술특강 등 겨울방학을 이용한 동북부지부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알차게 진행되고 있었다.

작년 9월 40여명 회원으로 출발한 동북부지부는 현재 110여명의 정회원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소모임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게 아주 좋은 점이라고 윤지희 지부장은 말한다.

교육강좌, 가족이 함께하는 자연관찰기행, PET 교육 등 96년 사업계획이 풍성한 동북부지부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 학부모들의 건강한 활동이 아이들의 건강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동북부지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송주비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 작담회

학급 학부모회 활성화로

참석자: 안용무(서울 강북구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이진철(서울 봉천중학교 교사
운영위원)
신호중(학교참여위원)
박인옥(본회 인천지부장 겸 부
회장)
사 회: 구명희(본회 학교참여위원회
위원장)

구명희: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난 학기동안 운영위원회가 시범 실시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급이상 도시에서 전면 실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참 교육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들의 입후보 등록과 선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입후보등록과 선출

안용무: 제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실시 되면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등록을 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등록을 못했죠. 학부모위원 6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저 혼자만 등록한 된 셈이 되었어요. 담임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지명해 대부분이 급식위원회나 보이스카웃, 육성회, 어머니회 등 기존모임의 임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교에 열성인 학부모들인 셈이예요.

이진철: 저희 학교도 늦게 지침이 내려와 시일이 촉박했지만 3학년 1명, 1학년에서 3명을 출마시켰습니다. 물론 그러기까지 담임교사들이 열성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구명희: 운영위원회가 시범 학교별로 유형이 있는데 선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용무: 학교측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내용과 함께선거를 알리는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간접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는 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박수로 통과를 시켰으니깐요. 선거인단은 학급대표인 반장엄마들로 구성되었는데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운영위원장 선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지역인사에게 위원장직을 권유했습니다. 다행히 사려깊은 교사위원 한분이 이의를 제기하여 교장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위원장을 포함, 운영위원 모두가 거의 교장에 의해 내정되는 것 같습니다.

구명희: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진철: 저희 학교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였습니다. 교장과 기존 육성회에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내정하였으나 담임교사 몇 명의 노력으로 1·3학년에서는 추가등록하여 경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후보자공약, 기호 등이 들어간 공문을 만들어 투표용지, 반송용 봉투와 함께 가정통신문으로 보냈습니다.

84%의 투표율 속에서 당선된 학부모 위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교장과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곤 했습니다.

안용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특히 학부모 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 자신도 거의 몰랐으니깐요.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함께 해보자고 권유했는데 섣뚱 나서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육성회나 각종 후원회 등 기존모임

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그것이 인식 부족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언론 이외에 학교에서는 직접적인 홍보가 없었습니까?

안용무: 전혀 없었습니다.

의 회의 결과나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을테니까요.

구명희: 지역인사라든지 교사위원 선출 문제등에 관해서 구성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안용무: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인사의 범위가 매우 적어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대부분 초등학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고, 학교측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결국 유치원 원장과 동장을 선출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진철: 지

역인사제는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 운영위원 중에 지역인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역인사는 학부모, 교사위원이 선출된 후, 이 위원들이 추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등한 위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모순된거죠.

박인옥: 인천의 한 구의원의 경우, 자녀를 전학시키면서까지 학부모위원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 분 생각에는 지역인사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로 교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구명희: 교사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선출되었습니까?



▲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인옥, 안용무, 구명희, 신호중, 이진철

일정과 안건 공고

구명희: 학교운영위의 회의안건과 일정에 관한 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진철: 저희의 경우, 회의 공고는 반드시 일주일전에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안건도 함께 공고했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사전에 안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또 시간을 비울 수 있으니까요.

이진철: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서무과에 비치했습니다. 선출과정에서 회의까지 가정통신문이 5-6회 나갔지만 학부모들 개개인에게 회의 때마다 보고서를 발송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호중: 제 경우 자녀들이 다달이 가정통신문을 받아오는데 그 통신문에 운영위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7)

부모의 바른 태도 자녀 열등감 해



윤 양 현 <여성학자>

다음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사춘기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외모에 대한 가치관 정립

자아 개념이 긍정적인 사람을 가리켜 자존심(self-esteem)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감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어른들의 무심한 행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며, 어른들이 잘 저지르는

무심한 행위 중 하나는 외모로서 그 아이를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여자답게 생겼구나" "계집애처럼 예쁘게도 생겼네?" "여자가 참 씩씩하게 생겨 맘에 든다." "남자답게 자랄 생겼다"

아이의 외모에 대한 어른들의 칭찬은 남녀의 외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가냘프고 여릿여릿하게 생긴 여성, 늙름하고 선이 굵직하게 생긴 남성. 갈수록 미스코리아, 슈퍼모델, 드라마 속의 멋진 남성상 등으로 꽉 채워지는 텔레비전 등의 비디오물을 통해 남녀에 대한 이분법적 모델은 자녀들의 우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모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요. 남자답게 생긴 여자아이나 여자답게 생긴 남자아이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분법적 가치관이 강렬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외모에서부터 일단은 긍정적이지 못하게 분명합니다.

중2생인 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현재 90세이신 시할머니

은 딸을 '모과'라고 부르셨지요. "내 80평 생 살아 왔어도 저렇게 못생긴 녀는 참 봤다"시며 과일 중 가장 못생긴 것이 모과라며 그렇게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딸이 일곱살 때인가 "엄마 모과가 뭐야?"하고 물었지요. "응 모과라는 과일이 있는데 아주 곱게 생겼어. 노할머니께서 나은이가 예쁘니까 그렇게 부르시는거야" 어느 날 모과를 보게 된 딸이 아주 흐뭇해 하는 거였어요. "엄마, 모과 정말 곱고 예쁘게 생겼네?"

사실 자주 방문하는 시댁인지라 어린 딸에 대한 노할머니의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에 대해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딸을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어머니인 나로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딸에게 평소 나의 미에 대한 개념을 더 의도적으로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도 나은인 성공작이란말야. 요 뚱뚱한 코, 쌍꺼풀 없는 눈두덩이, 화가 나면 함박만큼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있는 요 입술, 아주 개성있고 귀엽지 않나? 미스코리

아나 탤런트들을 봐. 어디 개성이 있니? 모두가 만들어 놓은 작품같은. 나은이만의 개성 아주 맘에 들어." 외모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중학생이 되어서는 "나은인 분위기가 참 매력적이지. 평소애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깊이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거야. 성형수술들 해서 오목오목 세우면 뭐하니? 분위기가 없는걸. 예쁜건 순간적인 매력이지만 속에서 우러나오는 분위기는 영원한 매력이야."

조사 결과 사춘기 남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은 여학생들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육이 발달할수록, 키가 클수록, 힘이 셀수록 남성다운 틀에 합격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조차 키 큰 학생들은 어른으로 대우 해주는데 비해 작은 학생들은 귀여운 존재로 바라봅니다. 남성다움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춘기 남학생들에게 '귀여운 존재'는 자아개념에 치명적인 상처로 작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남성다워야 하

임감 있는 운영위원 선출

안용무: 저희 경우에는 학교에서 3년째 되는 사람으로 교사위원의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바로 내년에는 다른학교로 전근가게 될 교사들이죠. 새로 오신 교사들 중에서 원하는 분이 있었는데도 자격문제로 입후보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교무주임 등 교장의 측근들이 대부분이 선출된 것 같아요.

이진철: 교육부, 교개위안에는 교사위원 입후보자격이 그 학교 재직기간 1년이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3월에 발령을 받고 운영위원회는 4월에 구성되니까 1년이상 규정은 당연하죠. 그런데 3년 제한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박인옥: 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네요.

운영위원회 현실

구명희: 안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전주지역 한 학교의 교과선택문제까지도 의안으로 상정되었다고 하네요.

안용무: 특별한 안전은 없었습니다. 단지 식사, 돈 그런 것들이 주화제였습니다. 교사들은 발언이 없었구요. 규약문제는 교장선생님도 사전 지식이 없는 듯 했습니다. 회의 날짜까지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 교장이 회식을 요구해왔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관례라며 학교운영위를 육성회와 별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 같았고요. 회의다운 회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교장과 교육위원회에서하는 공청회에 2번 참가한 것 뿐이죠.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이라면 학교운영위가 지금까지처럼 선생님들을 접대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됩니다.

구명희: 바로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육재정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이진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부, 교

육당국,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에 서로 이해관계가 많고, 공통분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봉천중학교가 교육부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 위원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점 때문인 듯 해요. 운영위원회에 대해 언론에서 원고를 부탁받았을 때 '학부모들이 달려온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 글을 읽었는지 회의때마다 참관을 나오곤 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하게 정착하는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학교장임을 교육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단위학교에서 아직까지도 대단히 큼니다.

운영위원회의 정착에서 중요한 과제는 교사의 인사, 즉 물갈이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합리 주의, 상식을 갖는 관리층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올바르게 정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이진철: 첫번째 위원회에서는 자리배치 문제로 교장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회의를 교장실에서 하는데 위원장이 중앙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교장은 평위원으로 자리가 배치되었죠. 명패도 만들었고요. 교장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했습니다. 교장의 권위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기도 했죠. 학부모들이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어요.

운영위원장은 기존 육성회장이었는데 학교장의 임명을 받아서 육성회장을 했을 때와 선거를 통해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진철: 학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수요, 공급자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교사집단은 고용자로, 학부모는 사용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잘못 접근하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겠지요.

한 예로 강남의 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강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방법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주위 학원에 서 강사를 섭외하면 문제가 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신호종: 미국의 경우, 특별활동강좌는 학부모 중에서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맡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의 업무를 보완해 주기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운영위원회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호종: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 교사선언에 참가해서 징계를 받았던 내발산 초등학교의 김덕일 선생님의 경우 학부모, 시민들이 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학급 학부모회 활성화

구명희: 운영위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급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진철: 학부모 위원들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운영위는 제도적으로 학부모들이 힘을 갖을 수 있는 단위입니다.

한 학부모는 '학력은 보잘 것 없다. 국졸에 천자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기존의 육성회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학부모들의 힘이 커져야 한다'고 출마의 변에 썼

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좋은 학벌을 가진 학부모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안용무: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도 어머니로 거의 한정되어 있구요. 학부모 누구나 교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홍보

구명희: 저희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2월에 홍보전단을 만들어 학기 초 학부모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역적으로 공개강좌도 마련할 것이구요. 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학부모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진철: 운영위원회가 전면 실시되는데 제대로 나오려면 여유있게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교사, 학부모 중에서 소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학교운영위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드는 과정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셈이지요.

안용무: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도움없이 학교운영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이들어 이제는 나서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신호종: 학부모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운영위원회도 바로 서지요.

박인옥: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 대한 홍보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명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르게 인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김은주 기자 정리〉

첫 아이 중학교 보내기 (2)

중학교 6차 교육과정은 어떤 것일까



김 두루한
〈시흥교 교사,
중등열린교육연구회〉

새로 중학생이 되는 동희에게

동희야, 잘 지냈니? 그동안 여행도 하고 독서도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지내고 이렇게 감상문까지 써서 보내는 정성을 보이니 더욱 반갑구나!

그러면 중학교 6차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아 보자꾸나. 혹 교육은 백년 대계란 말을 들어 봤니? 그래, 교육은 백년을 내다 보고 하는 큰 계획이지. 그런데,우리가 자

동차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맞아 설계도지. 이처럼 물건을 생산할 때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서도 마땅히 치밀한 설계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정부(교육부)에서는 교육 계획(이를 '교육 과정'이라 한다)을 정해 두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하는가와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담겨 있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 나갈 사회(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 해 오다 생긴 문제점을 고쳐 더 낫게 만들고자 힘쓰는데, 우리 나라는 그동안 5년에 한번 쯤 바꾸어 왔어. 그래서 올해 입학하게 되는 동희는 6차 교육과정(95년부터 실시)에 따라 앞으로 중학교 공부를 하게 된단다.

그러면 6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 볼까? 첫째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시도 교육청 단위로 조금씩 달리,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도 자율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너희가 선택할 학과목이

생기고 학습부담은 줄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학생의 적성이나 능력,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알맞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은 너희가 배울 교과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구나.

그동안 중고등 학교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교과서로 배우게 되어 있었어. 그리고 학생들은 그 내용을 달달 외게 돼 있었어. 왜냐 하면 '평준화'의 형식에 치우쳐 어느 학교에서나 같은 수준과 질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학습 활동은 주로 교과서만 가르쳐왔고, 교과서에서만 상급학교 시험(평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식의 닫힌 틀로 너희가 살아갈 21세기를 준비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서 6차 교육과정은 '평준화'의 내용을 채워 너희 각자의 개성이나 능력에 따라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 놓았다고 할 수 있겠지...

동희야, 그러면 과목별 열린 학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함께 생각하자꾸나 (96.1.31)

소

기에 이러한 상처 또한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압박 속에서 미래의 삶에 장애를 주는 성격이 형성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일이지요. 사춘기 남학생들의 체격에 대한 압박관념만큼이나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성기의 크기입니다. 온갖 음란물은 물론이고 어린 남아들의 성기를 대상으로 말장난과 손장난을 일삼는 어른들의 행태에서, 남자의 성기 크기를 남성의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요.

얼굴과 각선미에 대한 딸의 열등감이나 체격과 성기에 대한 아들의 열등감이 우리 사회의 부추김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정확한 지식과 의식으로 얼마든지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볼 줄 아는 기쁨을 찾아줍시다. 내면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줍시다. 자존심 있는 아들 딸들은 결코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22-1 (2층)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5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만화를 사랑합시다

지난 19일 2002년 월드컵 축구의 남북공동개최를 국제축구연맹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문 방송의 관심있는 기사거리가 되었다.

‘북, 월드컵 공동개최 FIFA에 전문... 월드컵 공동개최 기대와 경계’ ‘월드컵 공동개최, 적극적 제안의 속뜻은 무엇’ 등등

그날은 우리가족 뿐만 아니라 큰댁식구들이 함께한 자리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런 보도를 접한 뒤라서 가족끼리의 대화도 자연스레 그쪽으로 흘렀다.

‘기대와 경계’ ‘속뜻?’ ‘검토해야할 몇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접어두고, 모두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랬고, 공동개최가 된다면 가정하고 한마디씩 말문을 열었다.

“공동개최가 되면 통일은 몇년이나 앞당겨 질까?”

“한 10년?”

“축구때문에 서로 왕래하다 보면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지 몰라”

“북한주민들은 어떤 통일방식을 원할까?”

“흡수 통일?, 북한체제 통일?, 연방제?”

월드컵 축구 공동개최란 소재가 나중에는 통일에 관한 소재로 되어 버렸다. 그만큼 보통사람들은 남북의 체육교류가 통일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한다.

나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실형님이시다. 부모, 자식, 가족간의 생이별로 인해 애뜻한 사연들이 있는 실형님은 아니지만 고향을 무척 그리워 하시기는 마찬가지다.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술한

잔 드시고 얼큰해 지시면 우리들을 무릎에 앉혀 놓으시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고향으로 날 보내주...”란 노래를 부르곤 하셨다.

내가 어린시절 본 쓸쓸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아버지의 모습에서 언뜻언뜻 쓸쓸한 실형님의 모습을 본다.

대부분 국민들은 통일 전문가나 학자 정치인이 아니어서 ‘북한의 월드컵 공동개최’ 제의의 속뜻과 풀어야할 실타래의 세세한 문제점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

또한 남북문제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한 김대통령의 말씀대로 순수한 마음에서 남북당국이 서로 노력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가 이번일이 민족공동체의 축제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 91년 남북 통일축구,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의 남북한단일팀 파견 때, 단일민족으로 한마음이 되어 열렬히 응원했었고, 민족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이 되었던 걸 기억한다.

이번에도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이루어지면 TV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북한 동포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북한보다 더 정확하고 가깝게 북한을 알게 될 것이다.

나도 TV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은 한 핏줄이고 우리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란 말을 자랑스럽게 하게 되길 바란다.

(장은숙)

고품질 문화가 주는 충격! 만화영화 상영회의 기본의도는 문화적 충격이었다.

“이런 만화도 있구나”

TV 어린이 프로그램의 50%를 만화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 수많은 만화주간지가 널려있지만 만화가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고 일깨우는 매체라고 할 때,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만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TV 어린이 프로그램의 만화도 60%가 공상과학 만화를 빙자한 황당무계, 폭력정당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만화를 열망하고 만화에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예술적 완성이 높고, 재미있는 만화를 보여주고 싶었다. 만화선택의 원칙으로 첫째, 동양권 만화일 것(우리 아이들은 디즈니 만화에 너무 젖어들어 있다). 둘째, 두편 중 우리 만화를 찾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 셋째, 완성도가 높을 것.

내용도 좋고 재미있는 동양만화는 많았다. ‘미래소년 코난’으로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의 토토로’ ‘아기타’ 등과 중국의 ‘피리부는 소년’ ‘개구리는 울창이 엄마’ ‘삼인의 승려’ 등을 비롯 동구권의 애니메이션도 구해볼 수 있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일본만화는 굉장히 흥미로왔는데 과연 만화왕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동아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영상모임과 상당한 수준

의 작품도 적지 않았으나 장편은 거의 없고 어린이용은 없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만화계에도 훌륭한 장인정신과 예술성으로 만화계를 지켜온 만화가들이 많고 애니메이션 생산량 세계 1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만화에 대한 애정부족의 결과다. 만화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다는 것이다. 흔히 만화라면 오락만화를 전부로 알고, 유치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되도록이면 권하고 싶지 않은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것이다.

만화 생산구조의 파행성도 있다. 일정한 양성소가 없이 문하생으로 들어가 도제식 수업으로 양성되는 만화가. 흔히 만화방이라 불리는 대본소 체제가 만화발전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히트작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만화방에만 공급이 가능함으로 판매부수에 한계가 있다. 이러니 애니메이션도 발전이 없는 것이다.

최근 박재동씨가 대표로 있는 ‘우리 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과 같은 만화가 모임이나 동호회가 늘어가고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심이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 문화구매 행위이다. 만화도 보러 가고 만화책도 사서 보라는 말이다. 만화는 글과 그림, 영화적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예술가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지닌 환상의 매체! 만화를 사랑합시다.

(홍수영)

■ 상담실을 찾아서

한국 여성의 전화

지난 95년부터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상담소 개설을 목적으로 상담원 공개강좌를 마련했었다. 학부모회 사무실로 끊임없이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상담, 고발전화와 학부모 상담소의 필요성을 자연스레 요구해 왔다.

이러한 상담소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 중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를 찾았다.

여성의 전화는 장충동에 위치한 여성평화의 집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83년 여성의 전화가 개설되면서 성차별, 폭력 등으로 피해입은 여성들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원들은 여성의 전화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교육강좌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으며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한다. 교육강좌는 여성학, 상담학, 여성심리학 등 여성문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상담실무교육과 참관을 통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활동은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법률상담 등이 있는데 면접상담은 예약이 필요하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형편이 안좋은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 제도도 있다고 한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

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거나 휴식처가 필요한 경우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87년부터 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집단상담이나 의식향상훈련, 프로그램 운영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상담실과 특별한 연계활동은 하고있지 않으나 상담내용에 따라 다른 곳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와 성윤리의 이중성,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의 전화는 상담을 경유하면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의 전화에서는 법제정운동, 홍보출판사업(회보, 베틀, 여성의 눈으로, 여성수첩제작) 문화사업(노래, 연극공연) 대중교육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유경 간사는 말한다. 점점 메달라가는 현실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모습에서 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은주 기자)

☐ 상담기관 안내 ☐

서울YMCA	676-6114
진로진학 상담실	
한국 여성의 전화	263-6464/5
서울시립 청소년회관	267-2111
청소년 상담실	
알콜중독상담(A.A한국연합)	774-3797
직장내 성차별문제 (민우회)	338-7480
가정법률상담소	269-5763/4
아동학대예방센터	782-3427 780-5688/9
따르릉선생님	813-7741
신나는 전화	325-6233
생명의 전화 (24시간)	763-9191
사랑의 전화 (24시간)	715-8600
나눔의 전화	752-4411
자비의 전화	737-7378 737-7374, 5, 6
청소년성상담	599-8460
청소년대학의 광장	730-2000

좋은 사람들

큰돌·작은돌

얼굴만 보아도 즐거운 사람들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아이들(작은돌)과 그들의 부모(큰돌) 모두 열아홉 사람이 만든 가족 모임이 '큰돌 작은돌'이다. 처음 시작은 3년전 '또 하나의 문화' 어린이 캠프 후속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엄마 몇명이

좀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함께 공부하는 '또마' (또 하나의 문화에서 만난 엄마)모임을 갖는 것부터였다.

여성학자인 윤양현씨와 4명의 전업주부로 구성된 또마모임은 1달에 한번 마포 현대 아파트 (회원의 집)에서 만나 아이들 키우며 생긴 일들을 글로 써서 발표하고 책을 정해 읽은 후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윤씨로부터 여성학 강의도 들으며 지금까지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다.

엄마들의 만남이 친숙해질 때쯤인 2년전부터 자연스레 아빠들도 함께 하는 자리가 한 두번 거듭되며 가족 모임의 필요성을 서로가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미 몇번의 캠프를 통해 아주 친숙해진 상태였다. 아이들의 캠프에서 엄마들의 만남으로 거기에서 또 가족의 만남으로 자라 탄생된 모임 '큰돌 작은돌'은 그 동안 북한산 가족등반, 두밀리 운동회, 자선 음악회 참석, 현리와 제부도 캠프,

송년모임, 결혼기념일 축하모임 등 다양한 행사들을 치루어 왔다.

야외와 회원들의 집에서 잦은 모임을 갖으며 큰돌 작은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즐거운 사람들이 되었다. 이들 중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이기도 한 신금숙씨는 "핵가족 시대를 사는 요즘 큰돌 작은돌의 만남 속에서 깊은 형제애를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산과 들, 강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돌처럼 19명 큰돌 작은돌들은 각각의 다른 돌 모양으로 조화를 이루며 만난다. 큰돌 작은 돌이라는 이름을 모임의 일원인 강주란(초등학교 3학년)어린이가 만든 것도 모임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여느 모임들처럼 회장, 부회장도 없이 그저 어른과 아이들의 평등한 만남, 이름대로 큰 돌 작은 돌의 어울림이다.

모임의 작은 돌 아이들은 애

기한다. "여러가족이 모이니 놀 거리, 얘기거리가 많아서 재미 있어요. 한 번 만날 때면 좀 더 같이 긴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야외캠프도 더 자주 가고 싶어요."

96년 큰돌 작은돌 모임은 그동안 다져온 친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돌을 위한 '주말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큰돌들 각자의 특기와 전공을 살려 작은돌들의 교사가 되는 것이다. 운동, 요리, 성교육, 컴퓨터,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해 한 달에 2번 분당의 윤양현씨의 집을 중심으로 열릴 '주말학교'를 위해 요즘은 모두 생각 모으기에 바쁘다.

경험이 쌓이면 다른 가족들의 참여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10명의 엄마, 아빠 울타리에서 크고 작은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송주비 기자)

월반 속진제와 IQ 140

1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세부시행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올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우수학생들이 상급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할 경우 초등 1회, 중·고교 1회에 한해 월반 및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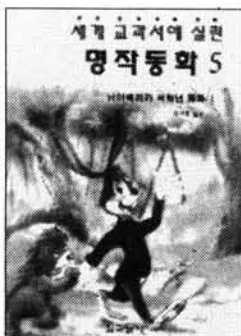
1990년, 학생의 능력별 교육, 수월성 교육에 입각한 교육기회의 균등과 학력 향상을 도모한다고 건의되었던 월반 속진제는 일단 획일적 교육의 지양이라는 점에서 평가될 만 했다. 그러나 건의 당시부터 찬반 양론이 분분했던 사안인 만큼 시행전에 반드시 재고, 산결되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현 상황의 월반 속진제는 또다른 시행착오라고 생각된다. IQ 140 이상이라든가 전과목 '수'로 영재를 판별하려는 발상은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IQ와 성적과의 상관관계도 애매한 상황에서 설사 한 학년을 속진한다 하더라도 1년만저

배우는 것일 이 영재교육일 수 있는가? 학력이외의 정신연령, 체력 등의 열세에서 오는 부적응을 다시 전학년으로 돌려보내는 방안 이외에 어떤 대책이 서 있는가? 월반 속진제에 앞서 우리는 교육 환경의 개선 그리고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원한다.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과 인성강화에 모아지고 창의력 신장과 사고력, 표현력 강화의 교과과정으로 교육내용이 개편, 보완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수월성에도 부합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영재교육은 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특수학교)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교육의 틀 속에 넣는 것은 정상아와 영재가 모두에게 불행할 뿐이다. 이런 선결조건이 미비된 채 시행되는 월반 속진제는 과외열풍을 거세게 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켜 교육의 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조은경 기고)

◇저학년에게 읽힐 수 있는 책

세계 교과서에 실린 명작동화 1~6

「일과 놀이」사(1994년)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수업 시간에 어떤 동화를 읽으며 공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과서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가 실려 있듯이 각 나라마다 어린이 교과서에는 나라마다 가장 유익한 동화들이 실려있게 마련이다.

「일과 놀이」사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남아프리카 등의 어린이들의 공부시간에 배우는 동화 동시 중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화를 골라 책으로 펴냈다.

이 책들은 우선 글씨가 저학년 어린이들이 보기 좋도록 큼직하다. 겉표인 삽화도 책을 읽는데 흥미를 더해준다. 내용 중에는 이미 우리에게도 우리가 읽는 글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책들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 글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는 데다 문자를 어느 정도 습득한 미취학아이라도 쉽게 대할 수 있다.

서점에 갔을 때, 책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골라주어야 할 지 걱정이라면 자녀에게 이 책을 골라주어도 좋을 것이다.

특히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선물해준다면 책에 대한 흥미는 물론 문자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조봉호 기자)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 『쑥쑥문고』

호랑이 등에 걸터앉은 소년

전래 이야기

금강산에 얹힌 전설 모음

전설은 말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흔히 전설을 포함한 민족 전체의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전설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깃들여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걸터앉은 소년」에는 모두 22편의 전설이 실려있습니다. 이 전설을 통해 우리 민족이 금강산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부 역임 김 480원 176쪽

우리교육

서울시 중구 무의동 9-13
정기구독 안내 730-1275

학부모, 자녀 위한 2월 행사 안내

알림

강남 관동지부

월례회 및 강좌-일본여성 문화 (정하미)
·일시: 2월 13일, 14일 10:00-12:00
·장소: 방배동 사무실
·참가비: 8,000 (2회)
·문의: 0342) 703-8933 634-6508

강서남지부

새학기 아이적응 도와주기 (유인성)
·일시: 2월 27일 10:00-12:00
·장소: 삼성출판사 세미나실
·대상: 예비 초, 중등 학부모
·문의: 634-6508

동북부지부

재미있는 수학 이렇게 해보세요 (한민호)
·일시: 2월 22일 10:00
흔들리지 않는 영어교육 (최진향)
·일시: 2월 29일 10:00
·장소: 미도파 사거리 평화은행 2층
·참가비: 5,000 (2회)
·문의: 977-4206

인천지부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강좌
·일시: 2월 15일-3월 7일 매주 목요일 10:30-12:30
·내용: 2월 15일-TV광고에 대한 학부모의 바른 이해 (이정주)
2월 22일-어린이 부적응아의 올바른 지도 (금명순)
2월 29일-어린이 창의력 계발, 어떻게 할까 (강호감)
3월 7일-초등영어교육의

바른 학습과 학부모 지도 (최진향)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도원 (032-465-0835)
·참가비: 10,000 (4회)
·문의: 032) 525-8342 032) 464-3169

부산지부

제2회 알짜학교
-열린학교 열린마음
·일시: 2월 26일-28일
·장소: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내용: 공통-과학실험, 생활영어, 언론 모니터, 연극하기, 기행 (다대포 물문대, 경주 공예민속촌, 청도 운문사) 선택-탈춤, 미술 공동작품 만들기
·대상: 현 초등6, 중등1, 2
·모집: 2월 17일까지 선착순 50명
·문의: 051) 247-1795 051) 246-1628

대구지부

월례회
-영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토론
·일시: 2월 9일 10:00
·장소: 남부도서관 소회의실
·문의: 053) 741-7366 (조영수)
경남 영산 줄다리기
·일시: 3월 3일
·장소: 경남 창녕군 영산면
·문의: 053) 741-7366

울산지부

월례회
·일시: 2월 27일 11:00
·장소: 사무실
·문의: 0522) 46-0677

익산지부

예비학부모 교실
·일시: 2월 22일 10:00 (초등학교) 2:00 (중학교)
·장소: 사무실
·문의: 0653) 856-0340

청주지부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육 (도종환)
·일시: 2월 28일-4월 28일 (11주) 매주 수요일 10:30-12:00
·장소: 학부모회 회의실
·모집: 2월 16일까지 선착순 20명
·회비: 교재비
·문의: 0431) 52-9541

중서부지부

새해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 달라지는 교육내용, 학교 운영위원회, 춘지문제
·일시: 2월 15일 10:30
·장소: 신촌 사무실
·문의: 336-5988
P.E.T 교육
·일시: 3월 12일부터 (8주) 매주 화요일 10:00-12:00
·장소: 신촌사무실
·문의: 336-5988

여천지부

열린자리
·일시: 2월 8일 종이접기
2월 15일 남녀간의 평등한 성역할
2월 22일 예비 초등 학부모교실
2월 29일 동요부르기
·장소: 열린교실
·문의: 0662) 84-5116 (조경란)

* 문화국에서 매달 문화기행을 준비합니다.

삼성 어린이 박물관

신체표현과 도전, 과학탐구, 인체탐험, 어린이 방송국, 창의적 미술표현, 자유표현, 멀티미디어 탐구, 또래끼리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행사로 '한국어린이 그림책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월 27일-2월 25일)

* 일시: 2월 23일 1시 30분
* 위치: 잠실 교통회관 부근 예전빌딩 (잠실역 하차)
* 회비: 어린이 5,000 어른 2,000
* 문의: 634-6508
* 주위에 가볼만한 곳: 교통공원

3월-인사동 화랑가

4월-서울 과학관

6월-용산 사료 (통신자료) 전시관, 한국통신 본관

7월-국악박물관, 국악공연 관람

* 소모임모집: 문화기행에 관심있는 학부모 모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2월 문화기행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공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소속 모니터팀은 지난 6.27 지자체 선거시 방송개혁국민회의에 참여, 공정방송보도 모니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4.11 총선에 대비 선거방송 모니터 및 공정선거 감시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활동하실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634-6508, 675-9068

'새 박사' 윤무부 교수와 함께 떠나는 겨울 탐조(두루미) 기행

▲ 일시: 2월 25일 오전 7:00 (덕수궁 정문 앞)
▲ 탐조지: 구철원역, 월정리역, 통일전망대, 아이스크림고지 (삼수리), 백마고지 등 (지도: 윤무부,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 참가비: 40,000
▲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 주최: 우리교육
▲ 문의: 02) 730-1275-6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생애이야기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자들이는 한강박사 김현아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하는 왜 해야 하는 교실 어린이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5 남보다 큰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과학이야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화창작회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3 오창영
62 끈질기게 물고 붙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64 약학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 역사이야기
3 4 5 임궏정과 일궏형제들 1·2·3 김우일
31 서울 600년 이야기 강근태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봉이 1·2·3 김경민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윤정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윤정
▶ 인물이야기
7 전태일 위기철

33 윤동주 정진규
49 신채호 김서정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장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8 여우와 여우가 뭐 하니 김 옥
9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19 딸꼬마이 이상권
20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21 삼계동 아이들 노정실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3 카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용·이현주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25 최초의와 훈장 윤기현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 장수 조호상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30 섬마을 아이들 신중행
32 아이구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없는 못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다고 꺾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철지의 매주콩 이재복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55 사장이 된 풀빵장수 박상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욱
69 느림을 아이들 임길택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76 환동아와 검둥이 이오덕·권정생 외
79 불귀신 아버지 김학철 외
80 오얏꽃을 넣은 편지 권선자 외

● 새로나온 책 산하어린이 ·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재미있는 이야기가 달력처럼 펼쳐 있는 이야기 달력

책을 펼쳐면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달력으로 새로운 놀이·공부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마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알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문화창작회 글/최미숙 그림/값 4,000원

82 비를 부르는 소년 김운배
84 동글이와 덩글이 홍윤희
▶ 옛날이야기
36 민요기행 신경림
68 열쇠구 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균
74 짚싸구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식
▶ 옛날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75 개비 개비 참도개비 김중대
77 백두산 산삼과 매산이 이야기 동네
78 천지와 돌바늘 이야기 동네

도서 출판 서울 마포구 아현2동 338-10
산하 TEL 392-7641 FAX 313-2582